

TV의 중장기 수급전망과 정책

통신정책연구소장/홍병유

목차

- 1. TV수요 분석의 개요
- 2. 선진국의 TV보유 및 수요연구
- 3. 한국의 TV보유 및 수요의 장기전망
- 4. 결 론

1. TV수요 분석의 개요

1) TV 수요의 특성과 예측방법

내구성 소비재의 수요를 정량적으로 추정 함에는 소모품과 같이 신규수요만을 종속변수로 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외에도 상품의 내구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내구재의 누적된 보유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또한 가능하다. 자동차와 같은 내구재의 수요예측에는 위의 두 가지 방법이 공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전화와 같이 일종의 네트워크(Network)로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상품에서는 누적된 보유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하는 방법이 보다 보편적이다. 이것은 수요예측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성격이 상품개개의 독립성이 강하나 또는 상품으로 구성되는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겠다.

TV는 그 상품의 독립성면에서 볼 때 전화와 자동차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TV의 수요예측에서는 전화보다는 개개 상품의 독립성이 강하므로 TV네트워크 가입자수의 수요예측 보다는 TV수상기의 수요예측이 보편적인 반면 자동차보다 상품의 시스템 성격이 강하므로 그 자료의 형성과정에서 TV 네트워크 가입자수와 TV수상기의 보급대수의 구분이 명확치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이다.

TV 수요예측에서는 이와 같은 통계상의 혼란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도 TV의 주종을 이루어 가고 있는 칼라TV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 시계열자료가 충분치 못한데서 오는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수요예측의 가능한 방법론들을 제한시키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를 회귀 분석하는 통계적 모형에 의해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선진국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TV수요를 예측하였다.

2) 소득과 TV 보유성향

TV의 보유성향을 결정짓는 설명 변수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다. (도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의 102개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보유 TV 1대당 인구수 간에는 뚜렷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변수들을 로그함수로 변환시켜 회귀분석한 결과는 아래식과 같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ln(\text{인구수}/\text{TV 대수}) = 13.1 - 13.2 \ln(\$ 1\text{인당 GNP})$$

(24.2) (-18.5)

$$R^2 = 0.77$$

()안의 숫자는 t-통계량

$$\text{승용차} : \ln(\text{인구수}/\text{승용차대수}) = 12.3 - 1.18 \ln(\$ 1\text{인당 GNP})$$

(31.3)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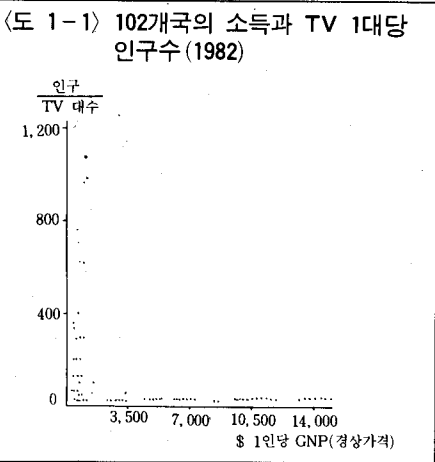
$$R^2 = 0.80$$

()안의 숫자는 t-통계량

TV, 전화, 승용차의 세 식에서 설명변수 추정계수의 절대치는 1보다 큰 것으로 볼 때 세 개의 상품은 보유성향이 소득에 대해 모두 탄력적인 내구재임을 알 수 있다. 세식의 회귀분석에서 자유도는 매우 높고 각국의 자료가 저소득 국가에서부터 고소득 국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R²의 값이 모두 약 0.8 수준으로 높은 것은 소득변수가 TV, 전화, 승용차와 같은 내구재의 수요를 결정짓는 좋은 변수임을 말해 주고 있다.

3) 정보화 사회와 TV 수요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개발보급되어 서비스의 종류가 점차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들이 상호 결합된 집중형서비스들의 공급으로 정보산업은 점차 복잡다양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TV의 경우도 단순한 방송수신단말기의 역할에서 진일보하여 음성 및 화상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기기로서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볼 때 TV의 독립상품으로서의 성격은 점차 줄어들며 전화와 같은 시스템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증가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변화외에도 TV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 및 전화에 비하여 상관된 변수 등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TV 수요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추정할 종래의 수요예측 방법을 지양하고 다수 선진국의 수요패턴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장기적 TV 보급대수의 수렴치를 추정하려는 본고의 방법론은 더욱 유용하다고 보겠다.



상기 식은 저자의 전화수요예측 연구에서 108개국의 소득과 전화가입자 1인당 인구수(1981)와의 관계식과 또한 저자의 승용차 1대당 인구수(1981)와의 관계식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두 식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text{전화} : \ln(\text{인구수}/\text{전화가입수}) = 12.6 - 12.2 \ln(\$ 1\text{인당 GNP})$$

(30.8) (-22.6)

$$R^2 = 0.83$$

()안의 숫자는 t-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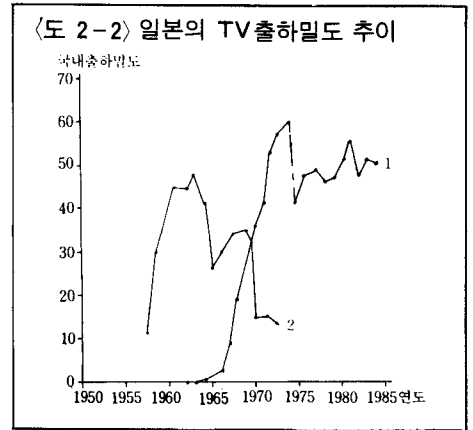
(도 1-1) 자료 : UNESCO, UNESCO 통계연감, 각권 ; 경제기획원, 주요해의경제지표, 1985

2. 선진국의 TV 보유 및 수요연구

본장에서는 선진국의 소득추이와 TV 보유밀도추이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본연구에서는 자료가 허락하는 한 가능한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연구를 시도하였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서독 등 19개국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표본국가 중에서 자료가 가장 충실하여 TV 보급의 성장과정을 초기 단계부터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일본부터 분석해가기로 한다.

1) 일본의 사례연구

(도 2-1)은 1966년부터 1979년까지 일본의 흑백TV와 칼라TV의 1000명당 보유밀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칼라TV의 경우는 전형적인 성장곡선(logistic curve)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1974년까지는 급속한 증가를 시현하다가 그 이후는 1000명당 350대 보유수준으로 수렴해가는 듯하다. 흑백TV의 경우는 칼라TV와는 정반대로 1960년대 후반에서 1000명당 250대 수준에서 정점을 이루다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0의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추세가 지속된다



면 장기적으로는 흑백TV는 퇴조하고 칼라TV로 전면 보급될 것이므로 본절에서는 일본의 칼라TV 보급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일본의 TV 보유밀도곡선에서 나타난 바와같은 성장곡선 패턴은 출하밀도곡선에서도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 2-2)는 1958년부터 1983년까지 TV 출하밀도(1000명당 TV 출하대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흑백TV는 칼라TV에 비해 일찍 성장곡선의 성장을 보여 1960년대 초에는 이미 공급의 상한수렴치에 도달한 이후는 칼라TV에 밀려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도 2-1)

자료: 전파신문사, 전자공업연감, 각권
총부청통계국, 일본통계연감, 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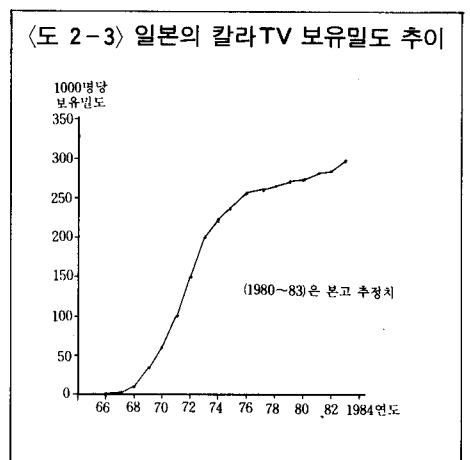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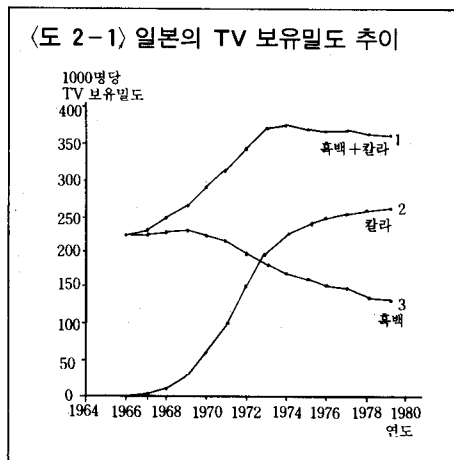
(도 2-2)

- 1: 칼라TV 출하밀도 (1962~1983)
- 2: 흑백TV 출하밀도 (1958~1972)

자료: 전파신문사, 전자공업연감, 각권

(도 2-3)

자료: 전파신문사, 전자공업연감, 각권
총부청통계국, 일본통계연감, 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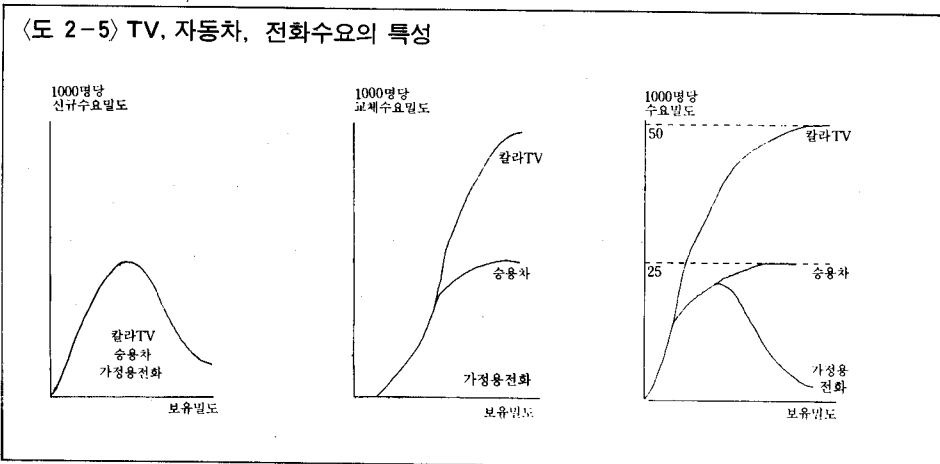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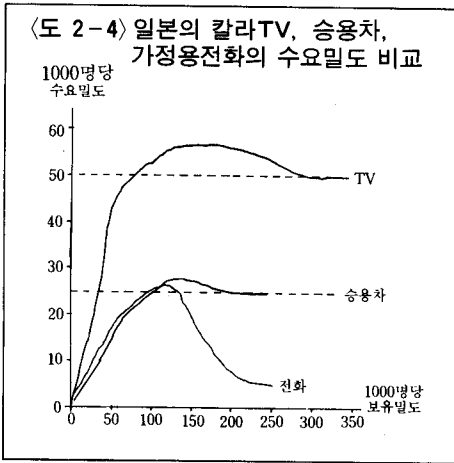


칼라TV의 출하밀도 곡선은 1000명당 50대 수준정도에서 수렴되어가는 듯하다. 일본의 칼라TV 출하밀도의 포화수렴치라고 볼 수 있는 1000명당 50대 수준은 일본의 TV 보유밀도 곡선(도2-3)의 포화수렴치라고 볼 수 있는 1000명당 350대의 약 1/7 수준으로써 일본 칼라TV의 평균수명이 7년 정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도2-4)는 일본의 TV의 국내출하밀도와 전화, 자동차의 국내수요밀도의 추이를 각개 상품의 보유밀도에 대하여 나타낸 것으로써 3개 상품은 그 보급패턴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칼라

TV, 자동차와 같이 교체수요가 포함되는 상품의 수요곡선 형태는 보급초기 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포화수렴수준에 도달한 후 그 수준을 계속 견지하는 반면 교체수요가 포함되지 않는 전화나 대체상품에 의해 대체되어가는 흑백TV 등은 포화수준에 도달 후 감소해가는 패턴을 보인다. 둘째, TV, 전화, 자동차 공히 보유밀도가 1000명당 100대가 되면 수요밀도는 거의 정점에 도달한다. 셋째, 시스템 상품으로써 전화와같이 공급애로가 없는 TV, 자동차 같은 상품은 수요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임계점으로부터 수요밀도가 급격히 안정되는 다음 임계점까지는 불과 5년내외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 소요된다. 넷째, (도2-4)에 보는 바와 같이 교체수요가 포함되는 TV, 자동차의 보유밀도의 포화수렴수준은 1000명당 250~350대 정도로 두 상품의 보유밀도의 포화수렴수준이 접근한데 반해 두 상품의 수요밀도의 포화수렴 수준은 각각 1000명당 50대, 25대로서 TV가 자동차의 2배 정도의 수준을 시험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승용차평균수명이 10년임에 반해 TV의 평균수명은 승용차의 경우보다 짧은 7년정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칼라TV, 승



〈도 2-4〉

자료 : 전파신문사, 전자공업연감, 각권 일본자동차공업회, 자동차통계연보, 1965~83; NTT, 전신전화사업보고서, 1972~83

용차, 가정용전화의 보유 또는 수요패턴간에는 상당한 체계성과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요밀도의 포화수렴수준을 크게 결정짓는 수요요인은 신규수요가 아니라 교체수요이다. 수요의 변화를 고찰하면 수요의 저성장단계에서는 신규수요의 증가는 미미하며 수요의 급증단계에서는 신규수요가 압도적이며 이후 점차 교체수요가 압도적인 안정단계로 전이된다. 일본의 칼라TV, 가정용전화, 승용차의 수요밀도 곡선을 분석해보면 (도2-5)와 같이 개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타선진국의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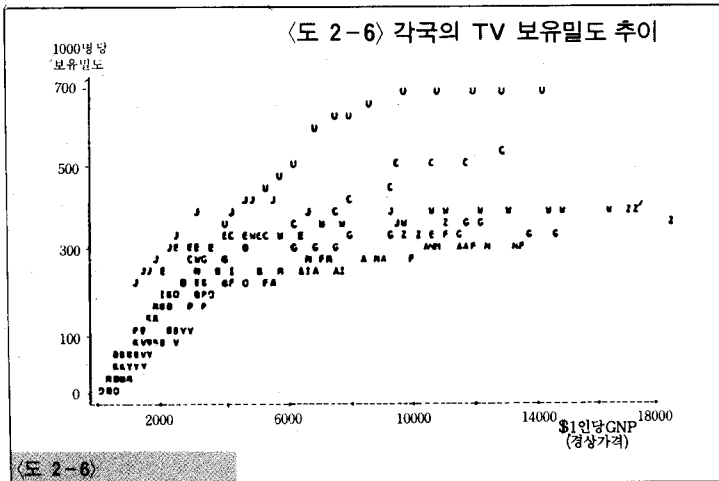
타선진국의 사례연구는 자료의 제한으로

일본과 같은 심층분석은 불가능하여, TV의 보유밀도의 수렴수준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도2-6)은 미국을 위시한 20개국의 1인당 GNP에 대한 TV 보유밀도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최상단에 미국의 보유밀도곡선이 보이며 그 밑에 캐나다가 보인다. 그 밑의 곡선군에는 일본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속해 있으며 스웨덴은 이 곡선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의 TV 보유밀도 수렴수준의 상하관계는 이들 국가의 전자기기 보유밀도 수렴수준의 상하관계와 대체로 일치된다.

따라서 본고는 선진국들의 TV 보유밀도의 수렴수준을 전화나 승용차의 보유밀도 수렴수준의 고저에 따른 분류와 마찬가지로 (표2-1)에서와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유형은 저자의 전화와 승용차의 보유밀도포화수준 유형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겠다.

TV 보유밀도의 포화수렴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사회·문화·경제 전반의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문화·관습 등에서 한국과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의 사례연구는 무엇보다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U : 미국
- C : 캐나다
- V : 스웨덴
- Z : 스위스
- J : 일본
- G : 서독
- E : 영국
- F : 프랑스
- A : 오스트리아
- N : 네덜란드
- I : 이탈리아
- P : 스페인
- K : 한국
- B : 브라질
- V : 베네주엘라
- O : 홍콩
- D : 인도네시아
- Y : 말레이시아
- H : 필리핀
- R : 태국

자료 : UNESCO, UNESCO 통계연감, 각권 ; 경제기획원, 주요 해외경제지표, 1985.

(표 2-1) TV보유의 포화수준 유형

유형	포화수준	국가
유럽형	300대/1000명 -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350대/1000명	네덜란드 등
북미형	500대/1000명	캐나다
	600대/1000명	미국

3. 한국의 TV 보유 및 수요의 장기전망

2장에서는 통계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 한 일본의 TV 보유밀도의 추이를 고찰한 결과 일본의 TV 보유밀도가 전형적인 성장 곡선임을 알아내었다. 아울러 타선진국들도 자료가 허락하는 한 분석한 결과가 일본의 패턴과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TV보유밀도의 성장추이 패턴은 TV와 더불어 현대문명의 대표적 기기인 전화와 승용차의 보유밀도 성장추이 패턴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선진국 TV의 보유밀도곡선은 성장곡선으로서의 상당한 규칙성과 체계성을 갖고 있음을 도출 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경험적인 사실 들을 기초로 한국의 TV 보유밀도 및 수요 가 장기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발전해갈 것 인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의 TV 보유수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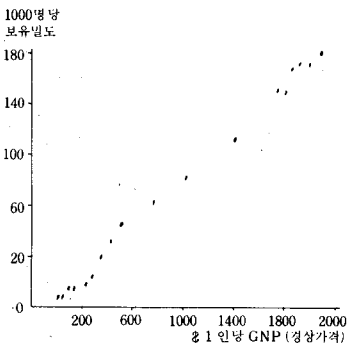
(도 3-1)과 (도 3-2)는 1964년부터 1984년까지 한국의 TV 보유밀도 추이를 1인당 GNP(\$ 경상가격)와 연도에 대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이후 소득증가에 따라 완만한 속도로 TV공급이 확대되어 왔으나 1인당 GNP가 \$ 200을 돌파한 1970년 이후에는 급격히 보유밀도가 증가하다가 1980 년대에 들어와서는 보유밀도의 증가속도가 다소 완만해 지고 있어 성장곡선의 성숙단계 인 안정적 포화수렴단계로 진입하려는 듯하 다. 이러한 성장곡선으로서의 특징은 한국 TV 보유밀도를 연도에 대해 나타낸(도 3-2) 를 보면 S자 곡선의 윤곽이 더욱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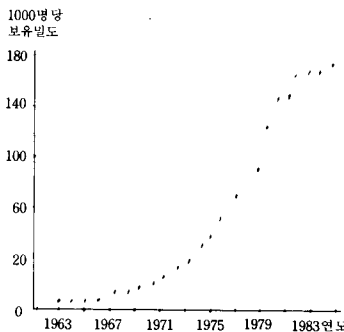
그러나 (도 3-1)과 (도 3-2)에서 예시 된 한국TV의 보유밀도 곡선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등록된 한국방송공사의 등록치 자료로서 실제 TV의 보유밀도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도 3-1)과 (도 3-2) 만으로 한국의 TV 보유대수에 대한 장기전망을 한 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겠다.

본고에서는 실제 TV 보유대수를 추정하 기 위하여 한국의 TV생산이 시작되어 시 판이 시작된 1970년부터 TV의 국내출하 대수를 누적한 후 포아송분포(Poisson Distribution)에 의한 TV의 수명확률을 적 용하여 연도별로 수명이 다되어 소멸되는 TV의 대수를 추정하여 차감하였다. 한국의 흑백 및 칼라TV의 정확한 평균수명은 알

〈도 3-1〉 한국의 TV 보유밀도 추이 I



〈도 3-2〉 한국의 TV 보유밀도 추이 II



〈도 3-1〉

자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자공업통계, 각권;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5.

〈도 3-2〉

자료: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자공업통계, 각권

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포아송분포의 평균 수명 $\lambda=4$ 년부터 $\lambda=10$ 년에 이르기까지 7개 λ 에 대하여 각각 소멸대수를 차감하여 추정곡선을 정하고자 한다.

한국의 TV 보유밀도의 등록치곡선은 $\lambda=4$ 와 $\lambda=5$ 사이 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TV 보유밀도의 등록치 자료상에 하자가 없다면 한국의 TV 평균수명은 5년도 채 못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겠다. 본고는 간단한 표본조사를 통해 한국TV의 실제 평균수명을 평가한 결과 $\lambda=6.5$ 라는 평가치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TV의 평균수명 $\lambda=6.5$ 년은 일본 TV의 평균수명 $\lambda=7$ 년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본고는 $\lambda=6.5$ 년을 한국 TV 평균수명의 추정치로 받아들여 추정곡선을 정하고자 한다.

(도 3-4)는 한국 TV 보유밀도의 등록치곡선과 추정치곡선을 일본의 곡선과 함께 나타내어 포화수준의 고저관계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한국 보유추정치에 대한 예측곡선(실선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한국 TV의 평균수명을 6.5년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며 여기에 대응되는 예측치는 (표 3-1)에 나타나 있다. 한·일 양국의 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위해 칼

라 TV의 시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도 (한국:1981년, 일본:1965년)의 시차인 16년 만큼을 일본자료의 당해년도에 가산하였다.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양국의 성장곡선의 원점은 서로 일치해져서 비교가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우선 일본의 TV 보유밀도의 추정치 곡선을 보면 1990년 (실제는 일본 1974년)을 정점으로 하강하고 있는데 이는 흑백 TV로부터 칼라 TV로 대체되면서 과다하게 보유된 흑백 TV가 소멸되어가는 현상을 의미할 것이다. 이 곡선은 서서히 감소되어 현재로서는 1000명당 350대 수준정도로 수렴해 갈 것이라고 추정된다. 반면 일본의 TV 보유밀도의 등록치 곡선은 매우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등록 TV대수의 통계치의 오류가 시정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일본의 경우 TV 보유대수의 등록치와 추정치는 서로 접근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TV 보유밀도 등록치와 추정치 곡선은 일본의 TV 보유밀도 등록치곡선과 추정치 곡선의 하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나 상당히 접근하고 있어 그 차이는 공히 1000명당 20~30대 정도에 불과하다.

(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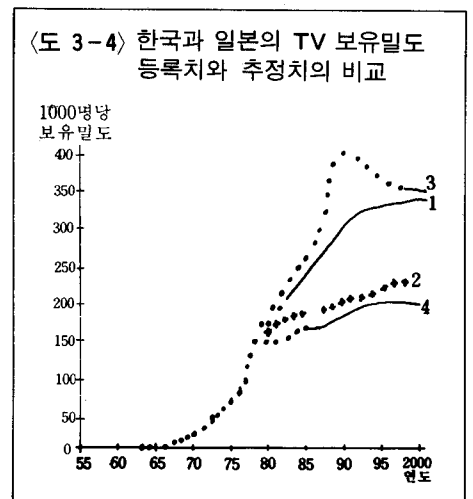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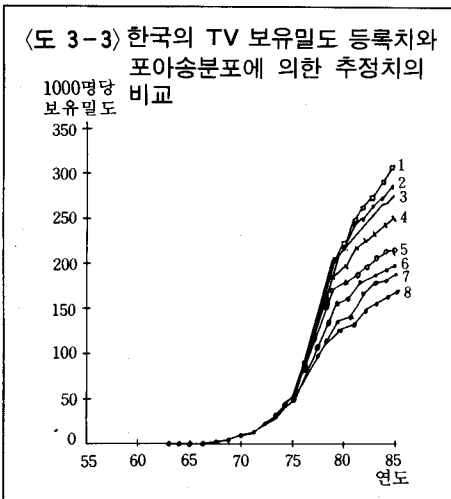
- 1: $\lambda=10$ 5: $\lambda=6$
- 2: $\lambda=9$ 6: $\lambda=5$
- 3: $\lambda=8$ 7: 한국등록치
- 4: $\lambda=7$ 8: $\lambda=4$

자료: 한국방송공사, KBS 연지, 각권; 한국 전자공업진흥회, 전자공업통계, 각권

(도 3-4)

- 1. 한국보유추정치
- 2. 일본등록치
- 3. 일본보유추정치
- 4. 한국등록치 - 예측치

자료: 한국방송공사, KBS 연지, 각권; 전파신문사, 전자공업연감, 각권; UNESCO, UNESCO 통계연감, 각권



(표 3-1) 한국 TV 보유의 예측치(1985-2000)

(단위 : 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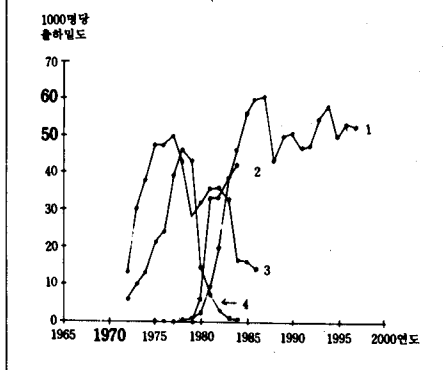
연도	인 구	국 내 출하대수	교 체 수요대수	신 규 수요대수	보유대수	보유밀도 (1000명당대수)
1985	41176	2000	1257	743	10623	258
1986	41785	2000	1332	668	11291	270
1987	42384	2000	1408	592	11883	280
1988	42965	2000	1494	506	12389	288
1989	43541	2000	1588	412	12801	294
1990	44127	2206	1688	518	13319	302
1991	44690	2234	1779	455	13774	308
1992	45256	2263	1859	404	14178	313
1993	45812	2291	1933	358	14536	317
1994	46358	2318	1996	322	14858	321
1995	46894	2345	2058	287	15145	323
1996	47417	2371	2112	259	15404	325
1997	47917	2396	2164	232	15636	326
1998	48422	2421	2210	212	15847	327
1999	48897	2445	2251	194	16041	328
2000	49355	2468	2287	181	16222	329

한국 추정치와 등록치가 공히 일본의 추정치와 등록치 하단에 위치하는 사실은 아마도 공공용 TV 보유밀도의 차이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전화와 자동차에 있어서도 양국간 가정용 보유밀도는 매우 유사한 반면 비가정용 보유밀도는 양국간 상당한 차이를 시현해가고 있으며 양국간 비가정용의 경우의 괴리는 양국간 산업구조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 TV 보유의 포화수렴 수준을 1000명당 300~350대로 추정할 것은 한·일 양국간의 TV 보유대수 추정치와 등록치간의 관계로 보나 한·일 양국간의 전화, 자동차 등 여타 내구재의 가정용, 비가정용 보유밀도의 차이로 보나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 TV 보유밀도의 포화수렴수준의 추정치를 1000명당 300~350대로 볼 수 있는 결정적 자료는 (도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의 칼라 TV 출

(도 3-5) 한국과 일본의 TV 국내 출하 밀도 비교



하밀도곡선이 공히 1000명당 50대 수준으로 수렴해가고 있으며 흑백 TV 출하밀도곡선은 공히 1000명당 0의 수준으로 수렴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볼 때 양국간 TV 수명상의 지나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본고가 유도해온 한국 TV의 포화수렴수준 1000명당

(도 3-5)

1. 일본 칼라TV 출하밀도
2. 한국 " "
3. 일본 흑백 " "
4. 한국 " "

자료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전자공업통계, 각권; 전자신문사, 전자공업연감, 각권

300~350대 수준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겠다.

한국의 중장기 TV 수급은 새로운 기술발전에 의한 신종 TV의 개발보급,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진출등으로 인해 (TV = TV 방송 서비스수상기)의 관계를 점차 악화시켜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TV 방송서비스는 점차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변화과정등은 현재의 시점에서 계량화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겠으며 명확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본고의 TV 수요예측을 실제보다 저평가된 예측이 되도록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4. 결론

정보의 전달수단이 발달되어 감에따라 정보의 유통은 단순한 음성정보로부터 문자, 화상의 형태로 급속히 변화해가고 있다. 이에따라 TV는 일방향적인 방송수신기로 부터 다방향적인 문자, 회상통신의 정보기로서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한국의 TV 보유특성(성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보화사회에서의 케이블 TV, 비디오텍스 등 문자 및 회상 정보서비스 수요예측 및 정책수립의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탄력성이 성장곡선을 따라 변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계적 모형방법은 회귀분석결과와 적합도의 고저에 관계없이 장기수요예측에는 적합하지 못하고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TV수요 및 보유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심층 분석하여 보았다. 그리고 TV, 자동차 및 전화의 수요성장 패턴에 유사성과 체계성을 보이고 있어 필요한 부분에 상호 대비시켜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V는 단순한 방송수신단말기의 역할에서 화상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통신기기로 변하고 있으며, 독립상품적인 특성을 점차 벗어나 전화와 같은 시스템 상품으로서 성격이 증가되고 있다.

둘째, 선진국들의 TV 보유 성장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1000명당 300~350대 정도에서 포화를 이루고 수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럽형으로 구분하였고,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각각 1000명당 650대, 1000명당 500대에서 포화를 이루어 유럽형보다는 포화수준이 훨씬 상회하므로 북미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와같은 특징은 전화와 승용차의 보유밀도 포화수준 유형과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셋째, 한국의 경우 이들 나라와 대비시켜 TV 보유전망을 해본 결과 한국은 일본을 포함 유럽국가들의 포화수준인 1000명당 300~350대의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추정된다.